

손흥민 “구단에서 올림픽 출전 확정”

“빨리 소집돼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고 싶다”

축구대표팀 공격수 손흥민(24·토트넘)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두고 이미 구단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인과 체코 원정 2연전을 마친 뒤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손흥민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구단이 올림픽에 보내주기로 한 것은 확정됐다”고 말했다.

올림픽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신재용 감독은 손흥민을 일찌감치 와일드 카드 후보로 점검하고 전력 구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덴마크와의 4개국 올림픽 국가대표 축구대회 3차전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당시 신 감독은 와일드 카드 후보를 두고 “소속 구단들이 합류시기를 늦추려다보니 협의가 잘 안 된다면서 ‘일정이 너무 늦어지면 안 뽑을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흥민까지 재검토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신 감독은 합류 시기 조율을 어려움을 호소할 것일 뿐 손흥민의 배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로 신 감독의 발언을 확인했다는 손흥민은 “구단에서는 당연히 소속팀 선수들을 늦게 보내주려고 할 것이다. 아직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면서 “합류 시기가 중요한 것 같다. 빨리 소집돼 선수들과 발을 맞춰 목표로 하는 2회 연속 올림픽 메

달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스페인과 체코와의 유럽 원정 2연전에 모두 출전했지만 인상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한국은 스페인에 1-6으로 대패한 뒤 체코전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난 욕심이 많은 선수다. 매 경기마다 골을 넣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한 손흥민은 “2연전에서 또 다른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 휴식을 잘 취해서 다음 시즌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럽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느꼈다. 또 유럽 원정 평가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자주 붙으면서 큰 대회에서의 경쟁력을 쌓는 것 같다. 많은 선수들이 느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해산된 선수들은 오는 9월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앞두고 다시 소집된다.

손흥민은 “우리도 월드컵에 나가는 것이 목표다. 최종예선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유럽과 선수들은 휴가이니 몸을 잘 만들어서 대표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K리그나 중국, 일본에서 뛰는 형들은 시즌 중이라 걱정은 안 된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부상”이라고 경계했다.

/김민근기자



스페인과 체코 원정 2연전을 마친 뒤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손흥민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구단이 올림픽에 보내주기로 한 것은 확정됐다”고 말했다.

현지언론 김현수 보는 눈 달라져

MASN “스프링캠프 기간 작성한 리포트 찢어버렸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매타를 선보이자 현지 언론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볼티모어 지역 언론 MASN은 7일 김현수에 대한 구단 안팎의 평가를 전했다.

MASN에 따르면 한 스카우트는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작성한 김현수의 오래된 스카우팅 리포트를 모두 찢어버렸다고 밝혔다.

이 스카우트는 “김현수는 KBO리그 스타 때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MASN은 “이 스카우트는 김현수에 대해 바디랭킹지와 타석에 임하는 자세, 좌익수로서 수비가 모두 향상됐다는 내용을 새롭게 메모했다”고 전했다. 이 스카우트는 “김현수가 타석에서 볼을 충분히 본 뒤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하고 있다. 더 이상 김현수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김현수가 골드글러브를 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김현수

는 좌측으로 향하는 뜬공에 이전보다 잘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가 빠른 공에도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평가다. MASN은 “김현수가 빠른 공을 공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지난주 김현수는 시속 97마일짜리 공을 가운데 펜스로 날렸다”고 설명했다.

백 쇼월터 감독은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김현수의 빠른 공 대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후 김현수는 몇 가지를 조정했다”며 “김현수가 최근 편해보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김현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하고 승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범경기 17경기에서 타율 0.178(45타수 8안타)에 그치며 극도의 부진을 보인 김현수에게 구단과 쇼월터 감독은 미아리노 행을 권유했고, 김현수는 계약 조항에 포함된 미아리노 거부권을 내세웠다.

그러자 현지 언론은 김현수를 비난했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는 23경기에서 타율 0.377(69타수 26안타) 1홈런 3타점 8볼넷 9득점을 기록 중이다.

김현수는 홈 개막전에서 팬들의 아우성까지 받았다.

백 쇼월터 감독은 그를 철저히 백업 선수로 분류하고 거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김현수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인상깊은 활약을 선보이며 선발 출전 기

회를 늘리자 현재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진 모양새다.

김현수는 23경기에서 타율 0.377(69타수 26안타) 1홈런 3타점 8볼넷 9득점을 기록 중이다.

/김민근기자

아르헨티나, 코파아메리카축구철레 꺾고첫승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LC마르셀로나)가 없어도 아르헨티나는 강했다. 아르헨티나가 ‘디펜딩 챔피언’ 칠레를 꺾고 2016 코파아메리카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아르헨티나는 7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칠레와의 대회 조별리그 D조 1차전에서 2-1로 승리했다.

부동의 에이스인 메시가 허리 부상으로 벤치를 지켰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앙헬 디 마리아(PSG)가 1골1도움을 기록하며 메시의 공백을 완벽히 메웠다.

아르헨티나는 부랴스투온 상대인 칠레를 제압하고 D조 1위 통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남은 상대는 볼리비아와 파나마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칠레는 첫 경기에서 패배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전반을 소득 없이 마친 양팀은 후반 들어 적극적으로 골사냥에 나섰다. 아르헨티나가 먼저 선제골을 뽑아내며 기세를 잡는데 성공했다. 후반 6분 바네가의 패스를 받은 디 마리아가 깔끔한 왼발 슈팅으로 칠레의 골문을 갈았다.

기세가 오른 아르헨티나는 불과 8분 뒤 추가골을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디 마리아가 넘겨준 패스를 바네가가 해결했다. 칠레는 후반 48분 페드로 푸엔잘타(보카 주니어스)가 만회골을 신고했으나, 경기를 뒤집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김민근기자

유로 2016 출전국중 가장 비싼 몸값은 독일

독일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에 출전하는 24개국 중 가장 몸값이 비싼 스쿼드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한국시간) 유럽 축구 전문 통계 사이트인 트랜스퍼마켓에 따르면 유로 2016에 나서는 독일 대표팀의 선수 가치를 합산한 결과 4억2150만 파운드(7213억원)로 집계됐다.

스페인인 4억1813만 파운드(약 7155억원)로 독일의 뒤를 이었다.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전체 몸값이 크게 치솟았다. 황금 세대로 정상을 겨냥하는 벨기에가 3위를 차지했다. 3억4568만 파운드(약 5915억원)다. 잉글랜드가 3억3450만 파운드(약 5724억원)로 4위를 기록했고 3억2363만 파운드(약 5538억원)의 프랑스가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포르투갈이 2억4129만 파운드(약 4129억원)로 6위에 랭크

헝가리는 2049만 파운드(약 350억원)로 24개국 중 가장 선수들의 몸값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위 독일에 비해 20분의 1 수준이다.

/김민근 기자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 블랙펄스팀 우승

대한민국 여성친화도시의 선구자인 익산에서 개최된 제6회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가 한국여자야구연맹(회장 정진구) 주관으로 5일간의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해 5일간 익산야구장 등 3개 구장에서 한스타 여자연예인 야구단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인 40개팀 7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구 블랙펄스 야구단은 예선전에서 리얼다아몬즈를 17:3로 승리하고 16강전에 진출해 땃다불을 12:1로 승리해 8강전에 진출했다. 아이원스를 14:0로 승리하고 준결승전에 진출해 서울 CMS를 7:5로 승리하고 결승전에서 서울 레이커스를 17:0로 대파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양구 블랙펄스팀, 준우승은 서울 레이커스 공룡위는 구리 나인비스와 서울 CMS가 각각 차지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 야구가 활성화되고 여자야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실력 또한 눈부시게 성장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세계여자야구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기원한다”고 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활용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